



2022.11.7.

국회미래연구원 | 국제전략 Foresight | 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제전략 Foresight

2022. 11. 7.

Vol. 12

ISSN 2734-0686

발행일 2022년 11월 7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수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외부 전문가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국제전략을 제시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김태경

요약

I. 서론

II.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III.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

IV. 결론

참고문헌

- 일상적 수준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의미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경로는 어떻게 가능할까.
- 평화구축을 아직 오지 않은 평화의 미래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에 기반해 미래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근대적 국가질서, 냉전체제의 경계 바깥에서 기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저항하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온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기억, 서사는 평화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함
- 이산(離散),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이주의 계기를 통해 정주국과 모국 사이의 삼각구도에서 특유의 월경, 초경적 정체성을 갖는 인구를 의미함
-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전지구화를 배경으로 한 자발적 이주 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모순으로 한반도로부터 이산이 강요된 다양한 인구로, 재일조선인, 재중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등을 포괄할 수 있음
-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는 무엇보다 그들의 존재론적 위치가 한반도의 분단, 냉전, 정전체제가 토대를 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 적대적 타자에 대한 규범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진다는 데 있음
-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민크로스DMZ를 개최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한 여성평화운동, 그리고 영국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탈북탈남민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의 정체성 모색과 밀접히 관련된 평화 담론·실천을 통해 한반도 중장기 미래의 평화구축에 기여함
 - 디아스포라는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정체성, 존재론적 위치성이 제기하는 제3, 제4의 지대의 가능성, 즉 그들이 이분화된 어느 한 측의 선택지에 들어맞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며 현재의 갈등적 구조, 체계와 직접적으로 대립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평화구축의 미래적 행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함
 -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실천을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전략에 고려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유지적 질서를 의심하고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공간에서 새로운 만남과 교차를 통해 평화적 경로들을 탐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임

I. 서론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협정(peacemaking), 평화구축(peacebuilding)

- 고질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일상적 차원으로 구현하는 평화과정(peace process)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사업(peacekeeping), 갈등당사자들 간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합의(peacemaking), 그리고 직접적 폭력을 넘어서서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극복하고 제도와 규범, 문화를 전환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포괄함
 - 세계의 다양한 평화과정의 부침에서 드러나는 바, 평화과정은 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분쟁 이후의 국면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는 기존의 고질적 갈등의 구조·문화의 발본적 전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 분쟁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함
- 고질적 분단, 갈등을 지속하는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구조를 전환하는 평화구축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일상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화해와 상호 이해, 존중에 바탕한 점진적이고 장기적 통합의 과정을 포함함
 - 종족(소수민족), 종교, 식민,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바탕으로 역사적 갈등과 분열을 지속해온 사회에서 평화구축은 갈등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격차에 대한 제도적 개입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 문화적 차원의 전환을 동반해야 함
 - 다양한 평화과정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평화협정 이후, 즉 제도적 차원의 안정적 평화의 정착 노력 이후 행위자들의 상호 인식의 변화, 평화문화로의 전환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¹
 - 따라서 평화구축의 과정은 평화의 제도화와 병행하여 어떻게 일상의 영역에서 갈등하는 집단들 간의 관계적 전환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 교육을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협력적, 통합적 정체성, 새로운 공동체적 서사의 형성을 동반해야 함
- 사람들 사이의 인식적 전환, 일상적 차원의 문화적 전환을 의미하는 평화구축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우리 사회 내부, 우리 사회를 넘어선 한반도 권역과 그 너머에서 새로운 종류의 관계맺음, 평화공존의 일상적 기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조적 차별과 적대, ‘타자성’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화하는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그들이 역사적 갈등,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사회의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탐색함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위치와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화적 전환을 준비하는 데서 어떤 근본적인 상호 이해와 존중,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 필요한가를 드러낼 것임
 - 본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평화구축에 함의를 갖는 세 가지 사례를 살피고 각각의 특수한 사례로부터

1 아일랜드섬 평화과정은 협정 이후 평화구축의 지속적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경 외, 『평화과정과 의회의 역할: 한반도 평화과정과 국회에의 함의』 국회미래연구원, 2021 참고.

한반도 중장기 평화구축이 참조해야 할 교훈을 추출함

- 본 연구는 기존의 한반도 평화과정 연구에서 초점을 맞춰왔던 중단기적 평화적 제도화의 해법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야에서 평화적 제도화와 병행하여 추구되어야 할 인식적, 문화적 전환으로서 평화구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II.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국민과 난민 사이, 초국경적 정체성

- 국제정치이론상 디아스포라 정치는 사회적 조직, 탈국가 탈민족 정체성, 초국경적 정체성으로 논의됨²
 - 디아스포라 정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세계정치의 비국가 행위자의 하나로 디아스포라를 접근하면서 국제정치의 근본적 가정들 즉 민족, 국가 구성원리, 국가주권 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음
 - 현재의 국제적인 것(the international)의 이론화가 디아스포라 정치를 설명하는 데 충분한가 아니면 이러한 현상들이 국제적인 것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하는 질문처럼 디아스포라 현상은 전통적 국제정치이론 전제들을 재고하고 넘어서실 것을 요구하는 전복적 성격을 가짐³
 - 전후 국제질서에서 세계를 떠도는 망명자, 무국적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국민국가 설립과정이 국가 영토 내 소수민족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적을 갖지 못한 개인이 국적을 가진 '범죄자'보다 못한 무권리의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 국가주권의 보호 하에 권리를 가진 '국민'과 주권 보호의 밖에 존재하는 인권을 상실한 '난민'의 대립되는 구도를 지적함⁴
 - 사회학자 이희영에 따르면, 초국경적 이주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의 생애사를 걸쳐 정체성을 형성, 변화시키는 탈북민들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인권과 분단의 피해자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인권을 가진 주체를 국가-국적-국민의 틀 속에서 사유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 남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의 틀 속에서 사유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임⁵
-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디아스포라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 구조적 조건, 그들의 의식과 정체성, 역사적 과정으로서 디아스포라의 다양성을 유념해야 함⁶

2 Hannah Arendt, 1955, Elmentar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Antisemitismus, Imperialismus, totale Herrschaft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55).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 2- (서울: 한길사, 2006);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2, p.358.

3 Francesco Ragazzi, "Diaspora Politics and IR: Do We Need to Rethink the Theory?,"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2012, 6, p.95.

4 Hannah Arendt, 1955, Elmentar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Antisemitismus, Imperialismus, totale Herrschaft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55).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 2- (서울: 한길사, 2006);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2, p.358.

5 이희영 2012, p.361.

6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아," 『일본비평』, 2015.

- 디아스포라 연구에 따르면,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각구도는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의 외부 구조적 조건으로서 디아스포라가 모국과 정주국 사이에서 어떤 관계, 상호동학을 갖느냐에 따라 독립적 행위자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결정됨
-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담론적 실천,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인식 및 문화적 양식에 집중하며 초국가적 네트워크 안에서 펼쳐지는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의 성격에 초점을 맞춤
- 한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점에서 단일하고 불변적 정체성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부의 젠더, 계급, 연령, 섹슈얼리티 등에 따른 이질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펴볼 수 있는 집단으로는 초국적 이주 맥락에 놓여있는 탈북민,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2021년 말 기준 한국은 732만여명의 재외동포를 가지며, 국내에는 195만여명 국내체류외국인, 3만여 국내입국 탈북민(누적)이 존재함
 -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명명은 국내외에서 거주, 이동하는 재외동포와 탈북민을 포괄하나 국내 존재하는 광범한 디아스포라의 문맥과 관련해 국내체류외국인의 존재도 염두할 필요가 있음
 -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평화구축을 고민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2백만에 육박하는 국내체류외국인의 존재는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평화공존/갈등, 포용/배제 등의 사회적 동학과 밀접히 연결된 맥락으로서 고려가 필요함
 - 재외동포는 재일동포, 재중동포를 합쳐 동아시아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다음으로 재미동포, 유럽의 경우 구소련 러시아에 재외동포가 주로 거주함
 - 2016년 3만명을 넘긴 국내입국 누적 탈북민 수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의 북중경계 감시가 강화되면서 감소했고 2020년 팬데믹 여파로 급감함
 - 한반도와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초국적 이주의 맥락에 존재하는 ‘사이존재’(in-between)로서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이 월경, 초경의 생애사적 과정에서 구성하는 복합적, 혼종적 정체성 측면에서 장기적 평화구축이 목표로 하는 갈등적 구조의 전환에 필요한 중요한 담론적 자원을 제공함
 - 디아스포라 특유의 정체성은 평화구축 과정에서 필수적일 현상유지의 타개와 관련해, 기존의 경계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새로운 상상, 실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시야의 평화구축을 위한 참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1] 재외동포 현황

지역별/연도별		2017	2019	2021
총계		7,539,821	7,493,587	7,325,143
동북아	일본	818,626(10.9%)	824,977(10.9%)	818,865(11.2%)
	중국	2,548,030(31.2%)	2,461,386(31.4%)	2,350,422(32.1%)
	소계	3,366,656(42.0%)	3,286,363(42.3%)	3,169,287(43.3%)
남아시아태평양		557,791(6.5%)	592,441(6.5%)	489,420(6.7%)
북미	미국	2,492,252(34.9%)	2,546,982(35.1%)	2,633,777(36.0%)
	캐나다	240,942(3.1%)	241,750(3.2%)	237,364(3.2%)
	소계	2,733,194(38.1%)	2,788,732(38.3%)	2,871,141(39.2%)
중남미		106,794(1.2%)	103,617(1.2%)	90,289(1.2%)
유럽		739,826(9.8%)	687,059(9.2%)	677,156(9.2%)
아프리카		10,853(0.1%)	10,877(0.1%)	9,471(0.1%)
중동		24,707(0.2%)	24,498(0.2%)	18,37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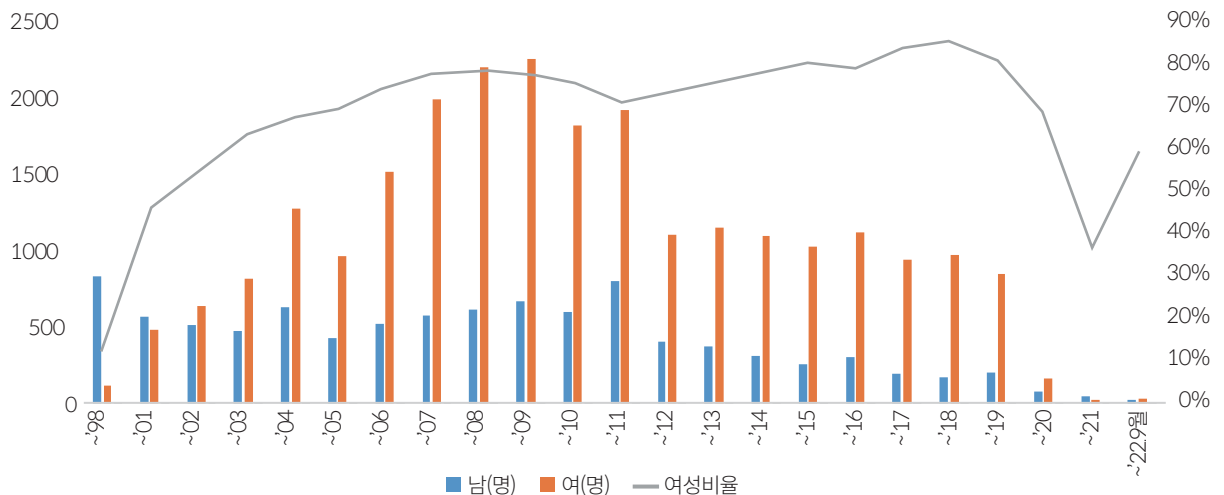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표 2] 국내 출입국 통계 현황

	2017	2019	2021
전체 인구	51,778,544	51,849,861	51,638,809
체류외국인	2,180,498	2,524,656	1,956,781
전문인력	47,404	46,581	45,143
단순기능인력	534,076	520,680	361,526
결혼이민자	155,457	166,025	168,611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그림 1] 탈북이탈주민 입국 현황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III.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복수의 정체성과 한반도 평화

- 평화구축 과정은 군사안보적 측면의 소극적 평화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존에 침묵, 배제되었던 목소리, 복수의 정체성, 다층적 담론, 실천을 포용함으로써 부정의, 불평등한 갈등의 구조적·문화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평화를 구성하는 노력임
 - 이러한 로컬, 아래로부터의 평화구축은 국내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넘어 초국적 차원의 시민적 대화, 연대와 병행됨
 -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러한 동아시아 시민적 연대 차원에서 특별한 것은 무엇보다 초국적 스케일의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그들의 존재론적 의미 때문임
 - 특히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국가와 민족 경계 및 그 배제와 폭력, 그러한 경계적 도식에 맞지 않는 ‘문제적’ 행위자들의 적응과 저항, 그 안의 이질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장기적 과정에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함
-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해방 이후 통일된 모국의 상실, 적대적 관계의 분단된 모국과의 관계 설정, 전후 일본의 차별적인 재일코리안에 대한 외국인정책, 북일·한일관계가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왔음⁷
 -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외부구조로서 정주국과 함께 갈라진 모국의 체제경쟁이라는 사각구도(일본-디아스포라-경쟁적인 두 모국)를 가지며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재일조선인 정체성 내부의 복수성, 이질성의 특징을 보임
 - 분단 이후 한반도 남북반부 각각의 국가형성 이전인 1947년, 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가적 경계 밖의 이방인이 된 재일조선인들은 두 개의 분단정부 수립 이후 기호로만 남은 ‘조선적’을 국적, 민족명으로 고수하는 투쟁을 오랜 기간 전개했음
 - 한국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합의했으나 그 대상을 재일코리안 전체가 아닌 한국국적 보유자에 한정된 결과, 조선적 코리안은 제외하고 스스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한국의 ‘재일동포’로 인정함⁸
 -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화의 역사적 과정은 냉전 초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분단정부 수립과정에서 남한 내 비민주적 국가폭력(4.3) 및 경제난, 그에 따른 일본으로의 탈주, 밀항, 한일 기본조약 이후 일본정부의 방조를 배경으로 한국계 민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적의 한국적 전환 압력 등 모국의 분열과 과거 식민제국이었던 정주국 내 구조적 차별 양측을 포괄함
 - 북한은 1954년 위무상 남일의 성명을 통해 재일조선인이 공화국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민족 교육 지원,

7 정영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푸른역사, 2019.

8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 1998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 사실상 중국과 구소련 동포, 그리고 조선적 재일동포를 제외했음. 그러나 현재는 규정을 수정하여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넓힘. 신기영 2015, p.40.

복송사업 등을 통해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중요한 ‘조국’으로서 존재했음⁹

- 1960년대 후반까지 재일코리안 커뮤니티 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 및 재일조선인 조직에 대한 신뢰는 강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분단된 모국과의 관계 설정과 ‘재일’(在日, 자이니치)의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체성 문제가 존재해왔음
- 일제의 식민통치 하 강제징용 및 이주의 역사, 광복 후 동아시아 냉전의 도래와 전쟁, 정전체제 하 남북한의 체제경쟁, 글로벌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현대사 궤적에서 재일코리안들은 ‘더블’ 나아가 ‘제3의 정체성’을 형성함¹⁰

○ 한반도의 평화구축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론적 위치는 그 자체로 특별함

-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사, 특히 분단정부 수립의 초입에 해당하는 제주 4.3 사건임
- 제주 4.3을 전후해 수천 내지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사카 등지로 이주, 몸을 숨기고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형성했고 2000년대 4.3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운동 이후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함¹¹
- 한반도의 분단이 격화된 시작점 중 하나이자 동아시아 냉전사의 국가폭력, 제노사이드의 사례로서, 탈냉전 이후 ‘제주형 평화’의 원형으로 논의되는 제주 4.3의 장기적 상흔을 통해 재일제주인 디아스포라의 단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불가결한 참여자임¹²

○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조선어, 일어의 이중언어를 구사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이어온 김시중 시인의 경우도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4.3 이후 일본에 밀항한 재일제주인 디아스포라로 그의 시작에서 드러나는 ‘재일’의 독특한 정체성과 삶은 장기적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어떤 평화적 지식, 교육이 필요한가를 짚어냄

나는 양쪽 끈에 얽혀, 자신의 존재 공간을 포개고 있는 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만이 ‘재일’의 실존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돌려보내진 나도 못지않게 ‘재일’의 실존을 양성하고 있는 한 명인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이 나의 ‘재일’임을 깨닫습니다. 일본에서 정주한다는 것의 의미와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을 파고들도록 이끈 ‘재일을 산다’는 명제는, 이리하여 나에게 들어앉았습니다.¹³

- 시인 김시중에게 ‘재일’은 ‘산다’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 재일의 현실, 즉 남도 북도 아닌, 모국을 늘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면서도 동시에 일본에서 정주하는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제3의 삶의 양식, 그에 따른 정체성임

9 ‘올드커머’ 재일조선인의 다수의 고향은 남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쟁적 두 모국의 존재는 동아시아 냉전사의 굴절을 그대로 드러냄

10 신기영 2015, p.44.

11 서승,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 기행』 창비, 2011, 277-281.

12 ‘제주형 평화’에 대해서는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사업에서 지향으로서 제시한 평화적 가치, 목표들을 참고할 수 있음

13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2016, p.234.

- 1948년 도일 이후 오사카 민족학교 재건 노력, 일본공산당원으로서 일본의 민주주의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인 권리 쟁취 투쟁, 한국전쟁 당시 반전평화 투쟁으로부터 이후 북한 문단과 총련의 비판에 대한 반발 등에 이르는 그 자체로 제3의 지대에서 존재하는 ‘재일’의 현실에서 시작(詩作)을 이어간 김시종의 궤적을 통해 이러한 특유의 정체성이 드러남

그날은 군수열차 운행저지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조국방위대에서 선발된 열두 명의 청년이 선로에 눕는다는 결사의 투쟁까지 짜여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군수열차는 운행되지 않아 큰일없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25일 미명의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국철 센리오카 앞의 완만하게 꺾어지는 선로에 몸을 체인으로 잇고 묵묵히 누워있던 광경은 지금 상기해도 몽클하게 북받쳐옵니다. 군수열차를 한 시간 늦추면 동포를 천 명 살릴 수 있었다던 당시의 저 절실한 호소는 육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반전평화를 향한 맹세가 되어 나의 마음에서 울리고 있습니다.¹⁴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병참기지화되었던 일본에서 군수물자 생산 및 수송을 저지하려는 재일코리안들의 투쟁 중 하나인 ‘스이타 사건’의 참여나, 1950년대 김시종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진달래』 잡지를 발간한 문화서클운동이 조선과 일본의 현실을 어떻게 동시에 의식하면서 시작과 투쟁을 이어갔는가 하는 것은 냉전기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평화구축 노력으로서 주목할 만함
 - 1954년 3월 1일 비키니 섬에서의 미국 수소폭탄 실험을 계기로 ‘반핵’ 문제가 일본에서 정치화되면서 『진달래』는 당시 “대중의 감정과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한 ‘반핵’의 화두와 관련해 특집을 실음¹⁵
 - 2차대전에서 원폭 피폭을 경험했고 1954년 비키니 섬 실험 당시 일본인 피폭사망이 있었던 일본 사회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실생활에서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다루는 한편 피폭자였던 구보야마 아이키치 특집을 마련함¹⁶
- 김시종은 1980년 광주 5.18 당시 『광주시편』을 출판하는 등 모국과의 관계 설정을 계속해왔고, 그를 중심으로 한일 시민사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에서 대마도로 떠내려온 시신들의 넋을 합동으로 위로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대마도·제주도 위령제’를 지내옴¹⁷
- 김시종의 시작과 삶에서 나타나는 평화구축의 실천은 ‘재일’이라는 특유의 정체성 안에서 어떤 개입과 저항이 가능한가를 보여줌

위민크로스DMZ의 여성평화운동

- 2015년 재미동포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적 여성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목표로 DMZ을 횡단하는 평화운동을 벌임

14 김시종, 2016, p.255.

15 장인수, “문화서클운동의 정치성과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 한민족문화연구, 61집, 2018, p.149.

16 ibid.

17 허호준, “일본 쓰시마에서 ‘제주4·3 위령제’ 열린 까닭은,” 한겨레, 2019.9.30., <https://www.hani.co.kr/arti/PRINT/911535.html> (검색: 2022.10.24)

-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이하 WCD) 운동은 재미동포 여성 크리스틴 안의 제안으로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코리건 맥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를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 12개국 30여 명의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주도함¹⁸
- 크리스틴 안은 뉴욕 상주 북한대표부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 2년 여 준비 끝에 한국과 북한의 여성평화 운동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크로싱’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는 데 기여함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인 5월 2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남한에서는 2015 국제여성평화 걷기를 진행했고 WCD는 5월 21-23일 북한에서의 일정을 먼저 수행하고 개성을 거쳐 남한으로 내려와 2.5km 민통선의 철조망 길 걷기에 합류함
- 남북여성평화운동계와 세계여성평화운동계의 만남은 정전협정을 관리통제하는 유엔사 및 남북한 정부와의 협상, 한국 내 남남갈등에 직면해 난항을 겪었으나 여성이 주도해 시민사회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평화구축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의의를 가짐
 - 당초 판문점을 걸어서 건넌다(cross)는 계획은 관계당국의 반대 의사를 수용해 버스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으로 변경해 진행
 - WCD국제위원회, 한국위원회는 행사 준비의 상당 부분을 남북한 정부의 승인과 더불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령부 승인을 받는 데 몰두함
 - 명예위원장을 맡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언론 인터뷰에서 ‘크로싱’ 행사의 어려움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일부의 단절감과 행사결정권이 주최자인 WCD가 아닌 유엔이나 미국정부, 남북한 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라 밝힘
 - 국제여성평화걷기 행사는 북측 방문 일정에 대한 언론보도와 함께 ‘친북’이라는 비판, 진영논리에 따른 맞불집회 등 남남갈등의 여파에 직면하기도 했음
 - 보수진영단체는 북한의 인권에는 침묵하는 평화활동, 반정부 친북모임이라는 반대논리를 펼침
 - 그러나 국제여성평화걷기 선언문은 “인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밝히고 2015년 15주년을 맞는 <여성,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이 강조한 “갈등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는 걷기의 의의를 주장함¹⁹
 -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걷기의 목적을 설명함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인위적인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인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돕는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전 세계인들에게 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제재조치를 철회할 것을 호소한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시 폭력을 금지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노예였던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운다.

18 명진숙,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 기독교사상, 2015, p.10.

19 명진숙, 2015.

군비경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민의 복지와 환경 보호에 사용되도록 한다.

국제법에 따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확대시킨다.

세계평화구축의 주춧돌로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전 세계인들의 지지를 촉구한다.²⁰

- 평화와 군축운동 전개를 통한 평화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리더십을 확대, 심화한 WCD는 2019년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 조직으로 이어져 현재는 2023년 정전 70주년을 목표로 종전평화캠페인을 진행중
 - WCD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미동포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남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북측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평화운동, 평화과정 참여에서 해외 디아스포라를 통한 ‘국제화’를 가시화했다는 점
 - 국내 여성평화운동, 특히 남북 여성교류의 관점에서 2000년대 활성화되었던 남북 양자간 교류가 6자 회담의 표류와 남한 보수정권의 집권 이후 정체되면서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돌파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²¹
 -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동포 여성들은 남북 교류 단절로 정체된 남한의 운동진영과 달리, 북측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짐
 - 재미 코리안을 중심으로 한 WCD, 이를 바탕으로 조직된 코리아피스나우는 워싱턴 정가, 특히 하원을 겨냥한 유권자운동으로서 평화 우선적 접근 (peace-centered approach)에 기반해 현재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춤
 - 한국의 여성평화운동계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코리아피스나우와 연대하는 동시에 로컬의 관점에서 정전 70주년에 한국전쟁에서 여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 서사를 발굴하고 있음²²

런던 뉴몰든 탈북탈남민 디아스포라의 공존의 실험

- 런던 뉴몰든 한인타운의 한글학교인 런던한겨레한글학교는 탈북탈남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공동체적 실험을 보여주는 공간임²³
 - 2016년 1월 개교한 런던한겨레한글학교는 이미 1972년에 개교한 런던의 체성탄한글학교와 별개로 탈북민 가족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특징적
 - 런던 외곽의 뉴몰든 거주 한국인들은 2만 여명, 이중 탈북민 출신이 800-1000명 가량을 차지하며, 이들은 2000년대 후반 영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면서 정착함
 - 탈북민 출신 중에는 남한에 먼저 정착했다가 영국으로 건너간 이들이 다수 포함됨

20 <2015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경기 선언문>

2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수 대표 인터뷰(2022.10.6)

22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수 대표 인터뷰(2022.10.6)

23 런던한겨레학교 홈페이지 <https://www.onekoreanschool.org/>

- 한겨레한글학교는 인근 교회 공간을 대여해 학부모와 한국에서 온 유학생 등이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해 무료로 운영해옴
- 런던한겨레학교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반도의 문화를 배워주고 남북한 코리안 어른들이 협력해 “분단의 그늘이 없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자 하는 기획으로서 의미를 가짐²⁴
 - 뉴몰든 내 남북 코리안들의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갈등과 분쟁은 적지만 은근한 구별과 배제는 여전히 작동함²⁵
 - 런던한겨레학교 설립 이후 학교는 특히 운영자금 등에서 한동안 곤란을 겪었고 한국 대사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음²⁶
 - 현재는 학교 이사, 교사의 북한 출신 코리안의 비중이 줄고 교사의 경우 모두 남한 사람이며, 남한 학부모도 늘어난 상황임
-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런던한겨레한글학교는 제3의 지대에서 열린 남북 코리안들의 새로운 관계맺음, 통합의 실험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기억’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음
 -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도래할 평화, 미래의 그 무엇을 정착시키는 과정이라 할 때, 평화구축은 이러한 미래의 기억을 현재 공유하기 위한 행위자 시민들의 ‘도덕적 상상력’을 필요로 함²⁷
 - 고질적으로 지속되는 분쟁, 균열을 넘어서서 화해, 협력과 공존으로부터 미래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 ‘도덕적 상상력’에 기반한 미래의 기억을 실현하는 과정은 일정한 전제조건을 수반함.
 - 평화학의 대가 요한 갈통의 지적한대로 군사적 의미의 안보,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인권, 사회정의가 존중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적극적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평화구축이라면, 분쟁적 사회는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구축이라는 단계적 구도를 시계열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평화구축 활동의 ‘동시다발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²⁸
 - 리더라크는 평화구축 활동의 동시다발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평화구축의 격차에 대해서 ‘상호의존성의 격차’, ‘정의의 격차’, ‘과정-구조의 격차’를 지적함²⁹
 - 리더라크에 따르면, ‘전략적 평화구축’의 접근은 △갈등집단들 사이에 고위층, 정부 관료의 역할, 행위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일반 시민사회는 배제되는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 수직적 차원의 상호의존적 관계 모두를 포함하는 평화구축, △직접적 폭력의 해결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근원의 제거, 사회 정의의 구축이 함께

24 이향규, “자기 정체성은 자신이 말하도록” <한겨레21> 2021년 5월 16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63.html (검색: 2022.10.24)

25 런던한겨레학교 교장 이향규는 뉴몰든에서 마주치는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함. “맥도날드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안 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창피해요.” (남한 젊은이) / “한국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북한 애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대요.” (북한 부모) / “한국 사람 집에서 일을 하면 물 한잔을 안 줘요.” (집수리를 하는 북한 사람) / “뉴몰든 식당의 주방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런던 시내 식당으로 가세요.” (남한 사람이 영국 사람에게 하는 말) 이향규, “그늘이 없는 세대로 성장하도록,” 교육신문, 2022.1.18. <http://kuen.korea.ac.kr/news/articleView.html?idxno=87> (검색: 2022.10.24)

26 장정훈, <런던한겨레학교 연대기>, 2022.

27 Lederach, John Paul. 저. 김가연 역. 도덕적 상상력(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파주: 글항아리, 2005.

28 김동진.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 2013, pp.26-27.

29 Lederach, John Paul, “Justpeace,” in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People Building Peace, Utrecht: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1999; 김동진 2013, pp.28-29.

- 추진되는 평화구축, △협정 혹은 합의의 순간에 이르는 과정과 협정 이후의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평화구축을 의미함
- 런던한겨레한글학교가 흥미로운 것은 평화구축 활동의 ‘동시다발성’이 실현가능한 일련의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임
 - 우선 영국이라는 제3의 지대에서 남북한 출신 어린이,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배우고 일상을 나누는 생활공동체라는 공간은 어느 정부가 나서 조직한 것이 아닌 자발적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가능함
 - 다음으로 제3의 지대라는 특성이 한반도의 냉전, 분단을 정의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상대적 대등성,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음
 - 탈북민들의 경우, 그들이 초국적 이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성, 국제적 위치성을 결정하는 데 작용했을 국가 경계의 질서, 남북한 간 위계로부터 상대적 거리를 확보하고 심지어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면서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보호를 통해 기존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는 평화협정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이나, 뉴몰든에서 사람들 사이의 통합의 실험은 협정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평화구축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미래 평화구축의 담론 · 실천으로 의의가 있음

IV. 결론

- 평화구축을 아직 오지 않은 평화의 미래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에 기반해 미래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근대적 국가질서, 냉전체제의 경계 바깥에서 기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저항하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온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기억, 서사는 평화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함
-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는 무엇보다 그들의 존재론적 위치가 한반도의 분단, 냉전, 정전체제가 토대를 하고 있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 적대적 타자에 대한 규범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진다는 데 있음
- 브리프에서 살펴본 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위민크로스DMZ를 개최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한 여성평화운동, 그리고 영국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탈북탈남민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의 정체성 모색과 밀접히 관련된 평화 담론 · 실천을 통해 한반도 중장기 미래의 평화구축에 기여함
- 세 가지 사례는 비교적 관점에서 정주국 정치와 모국과의 관계 사이의 삼각구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
 - 재미동포 여성들이 하원 유권자운동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평화협정 추진 운동은 글로벌 여성평화운동으로서 남북한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함

-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남북한 정부,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의 바깥에 존재하고, 국내정치적 남북갈등에 부딪히는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민크로스DMZ는 정전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
- 재일조선인은 두 개의 경쟁적 모국과 정주국의 사각구도에서 식민과 냉전의 적대와 대립, 혐오의 정치적 자장에 위치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구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임과 동시에 이들 스스로의 일상적 실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구축에 필요한 제3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재일조선인의 사례는 특히 현재진행중인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에 대한 저항의 평화적 실천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마지막으로 런던한겨레학교의 탈북탈남민 디아스포라는 분단된 두 개의 모국이 만들어내는 디아스포라가 갖는 복합적 문맥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특히 향후 한국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통합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 뉴몰든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2000년대 탈북 이후 정착한 한국사회에서 떠나온 탈남의 경험을 중첩적으로 가진다는 점, 이들이 난민으로 정착한 영국에서 한국인에 고용되는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위계관계를 다시 경험하기 쉽다는 점은 모국의 분단이 디아스포라의 존재론적 위치에 작동하는 복합성, 이들의 정주국에서의 적응 또는 저항의 복합성을 드러냄
- 본 연구는 세 사례가 갖는 각각의 차이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교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다고 평가함
- 세 사례는 모두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평화유지, 평화협정 등의 제도·정책적 공간에서는 주변적 위치를 차지함
- 그러나 평화과정을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사람의 통합,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현재적 갈등 구조의 인식적, 문화적 전환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남북한 두 개의 정치적 단위간 관계에 환원되지 않는 이들의 복수의, 변화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통합·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 공동의 서사 형성에 중요한 담론적 자원을 제공함
- 디아스포라는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정체성, 존재론적 위치성이 제기하는 제3, 제4의 지대의 가능성, 즉 그들이 이분화된 어느 한 측의 선택지에 들어맞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며 현재의 갈등적 구조, 체계와 직접적으로 대립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평화구축의 미래적 행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함
-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실천을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전략에 고려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유지적 질서를 의심하고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공간에서 새로운 만남과 교차를 통해 평화적 경로들을 탐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임
-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중국, 남북한의 사각구도에 존재하는 재중조선족, 재독 여성들의 평화운동 등 다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평화구축에 대한 함의를 후속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동진, “북한 연구에 대한 평화학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 2013.
- 김시중,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2016.
- 김태경 외, 『평화과정과 의회의 역할: 한반도 평화과정과 국회에의 함의』 국회미래연구원, 2021.
- 명진숙,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 기독교사상, 2015.
- 서승,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 기행』 창비, 2011, 277-281.
-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2015.
- 이향규, “그들이 없는 세대로 성장하도록,” 교육신문, 2022.1.18. <http://kuen.korea.ac.kr/news/articleView.html?idxno=87> (검색: 2022.10.24.)
- 이향규, “자기 정체성은 자신이 말하도록” <한겨레21> 2021년 5월 16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63.html (검색: 2022.10.24.)
-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2.
- 장인수, “문화서클운동의 정치성과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 한민족문화연구, 61집, 2018.
- 장정훈, <런던한겨레학교 연대기>, 2022.
- 정영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푸른역사, 2019.
- 허호준, “일본 쓰시마에서 ‘제주4·3 위령제’ 열린 까닭은,” 한겨레, 2019.9.30, <https://www.hani.co.kr/arti/PRINT/911535.html> (검색: 2022.10.24.)
- Arendt, Hannah, 이진우 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 2-(Elementar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Antisemitismus, Imperialismus, totale Herrschaft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55). 서울: 한길사, 2006.
- Ragazzi, Francesco. “Diaspora Politics and IR: Do We Need to Rethink the Theory?,”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2012, 6.
- Lederach, John Paul, “Justpeace,” in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People Building Peace, Utrecht: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1999.
- Lederach, John Paul. 저. 김가연 역. 도덕적 상상력(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파주: 글항아리. 2005.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수 대표 인터뷰(2022.10.6.)

국제전략 Fore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9.24.
2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5.
3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을 중심으로	차정미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8.12.
4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14.
5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1.11.
6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1.25.
7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비전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2022.2.14.
8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2.4.25.
9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2.6.20.
10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박성준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2.7.4.
11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Science Diplomacy)의 부상 - 한국 과학기술외교 전략과 과제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	2022.8.16.
12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김태경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2.11.7.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